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소고*

- 재정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formation Literacy in Social Media Age: Focusing on Redefinition, Contents and Media of Information Literacy

오 의 경 (Eui-Kyung Oh)**

목 차

- | | |
|----------------------------|----------------------------------|
| 1. 서론 | 3. 정보리터러시 재정의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
| 1.2 연구 내용 | 5. 정보리터러시 교육방법 |
| 2. 정보리터러시 정의에 관한 논의 | 5.1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 |
| 2.1 정보리터러시 2.0 | 5.2 매스미디어의 편재성 |
| 2.2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 5.3 소셜미디어의 편재성 |
| 2.3 메타리터러시 | 5.4 도서관서비스와 교육 분야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 |
| 2.4 트랜스리터러시 | 6. 결론 및 제언 |
| 2.5 소셜미디어리터러시 | |

초 록

본 연구는 정보리터러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재정의의 위하여, 오늘날의 정보환경을 표현하는 정보리터러시 2.0, 사회적 맥락,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조사, 분석하였다. 정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사회적 관계',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 등을 추출하였다. 교육의 방법(미디어)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소셜미디어는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로서,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함을 밝혔다. 후속연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defines information literacy (IL) and recommends its contents and media (platforms). Redefinition of IL was based on concepts such as 'Information Literacy 2.0', 'Social Context', 'Metaliteracy', 'Transliteracy', 'Social Media Literacy' and related researches. 'Social Relationship', 'Media Convergence', 'Critical and Evaluative Insight on Information' was extracted by major contents of new IL. To determine program methods, mass media's 'ubiquity' was applied to the study. Some social statistics reports proved that ubiquity of social media is quite high. Finally, proposed empirical study of IL using social media by follow-up study.

키워드: 정보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2.0, 사회적 맥락, 사회적 관계,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리터러시,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편재성, 미디어 융합, 평가적 안목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2.0, Social Context, Social Relationship, Metaliteracy, Transliteracy, Social Media Literacy, Literacy, Social Media, Social Network, Facebook, Ubiquity, Media Convergence, Evaluative Insight

- * 본 연구는 2012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소셜미디어 시대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수정·보완하였음.
-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ohuei@smu.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385-406,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38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느 시기나, 그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이른 바 '리터러시'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능력이었으며, 정보환경과 사회문화가 진화하면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해졌고,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비롯하여 네트워크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컴퓨터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네트워크리터러시'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사회의 다양화와 정보기술의 급속하고 꾸준한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량이 증가하였고, 정보를 획득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원의 이해, 정보의 접근방법 이해, 정보 탐색 전략 수립, 정보의 평가, 정보의 종합·분석, 정보 관련 법적 윤리적 문제 이해 등 종합적인 정보활용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능력을 '정보리터러시'라고 일컬었다.¹⁾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이 성립되었고, 스마트 기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보급은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미국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

미국 대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이하 ACRL), 영국 국립 및 대학도서관협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이하 SCONUL), 호주 대학도서관사서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이하 CAUL), 호주 뉴질랜드 정보리터러시 연구소(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 이하 ANZIIL) 등 각국의 도서관 관련 기관이 정보리터러시의 정의, 표준, 모형들을(ACRL 2000; SCONUL 2011; CAUL 2001; ANZIIL 2004) 제시하였고, 이들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은 정보리터러시의 주요 핵심 요소들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테스트하였고, 이용자의 정보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고전적인 표준과 모형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이며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적용이 쉽고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들과 모형의 구성 내용들은 중복되어 있어 내용이 비슷하고, 최근 변화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과 소셜미디어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리터러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MacKey & Jacobson 2011).

도서관 자원의 이용과 안내를 위주로 시작된 도서관 이용 교육은, 시청각 도구를 통한 교육, CD와 컴퓨터를 통한 정보검색 위주의 교육,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웹 기반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도구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정보 플랫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

1) '정보리터러시'는 문헌정보학계에서 '정보활용능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다른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논문 안에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정보리터러시'로 사용하였음.

에서 선호도와 호기심이 높은 미디어가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보리터러시의 구성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플랫폼 또한 정보환경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사회가 새로운 정보환경으로 진입하여 이전보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접근도 많아지는 등 정보활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고, 구성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미디어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효과적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정의와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오늘날의 정보환경과 정보리터러시와 관련된 개념들, 즉, 정보리터러시 2.0(information literacy 2.0),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메타리터러시(metaliteracy), 트랜스 리터러시(transliteracy), 소셜미디어리터러시(social media literacy)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정보리터러시를 수정, 보완하고, 구성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구성 내용을 확립한다.

(2) (1)의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정의와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을 설정한다.

(3) 교육의 도구와 방법(미디어)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기 위하여, 매스미디어의 '편재성' 개념을 적용한다. '편재성'의 측면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가능성을 증명한다.

2. 정보리터러시 정의에 관한 논의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리터러시 2.0, 사회적 상황,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하여 차례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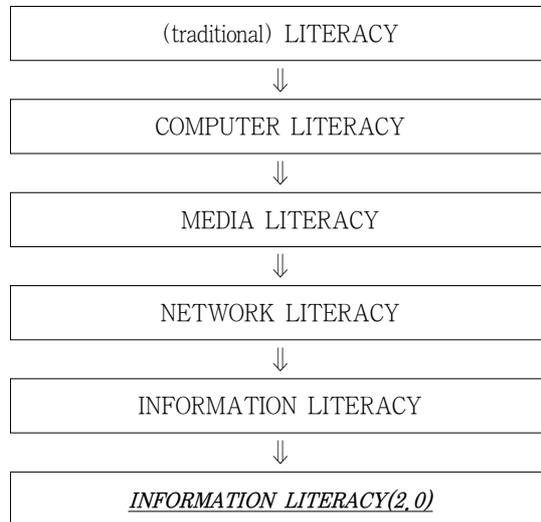
2.1 정보리터러시 2.0

정보리터러시 2.0은 두 가지 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념적으로 전통적인 리터러시에서부터, 컴퓨터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네트워크리터러시 그리고 정보리터러시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다음에 등장하는 리터러시라는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능력이나 기술들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web 1.0에서 web 2.0으로, library 1.0에서 library 2.0으로 개방, 참여, 공유 등의 서비스 정신을 포함하여 기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전의 정보리터러시에서 웹 2.0의 정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정보리터러시 2.0을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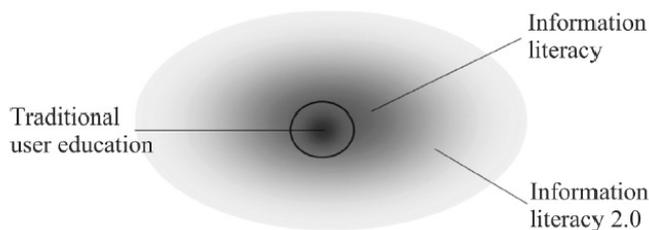


〈그림 1〉 리터러시 연속적 발전 단계에서 정보리터러시 2.0 추론

블로그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학술기사를 통하여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Tuominen(2005) 등은 소셜 테크니컬 필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정보리터러시는 표준화·획일화 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버전의 정보리터러시가 정의된다면, 그것은 정보의 질, 정확성, 진정성, 독창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piranec과 Zorica는 정보리터러시 2.0을 도

서관이용교육에서 이어지는 정보리터러시 교육 2.0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2.0 교육의 포괄 범위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즉,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교육은 핵심적인 작은 영역의 이용자 교육을,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이용자 교육 영역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영역,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2.0 교육은 이전의 정보리터러시를 포함하는 더 큰 영역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그림 2〉 정보리터러시 2.0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보 랜드스케이프의 확장
(출처: Spiranec & Zorica 2010, 149)

같이 전통적인 이용자 교육에서는 교육해야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만, 정보리터러시와 정보리터러시 2.0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전보다 더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가지 티칭 상황에서 정보리터러시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즉, 교육의 핵심은 해석(interpretations)과 교섭(negotiations)이며, 교육의 내용에는 정보의 맥락, 권위, 신뢰성, 정확성의 인지가 포함되며,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경로로 인도되어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징 지었다. 또한 이용자는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창조자이며, 교육방법은 보다 확대되고 통합되어, 혼합된 형태의 교육 방식(브랜드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추구하며, 웹 2.0의 정신을 갖는다고 하였다(Spiranec & Zorica 2010, 148-151).

2.2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social context'는 우리말로 '사회적 맥락' 혹은 '사회적 환경'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 또는 어떤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적·사회문화적인 외부 환경"을 의미한다('social environment' in WIKIPEDIA: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맥락'). 정보환경과 관련지으면, 현재의 정보 추구 및 활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기술적 접근(socio-technical practice approach)', '사회 구성주의적 프레임워크(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사회적 관계(social-relationship)', '커뮤니케이션 접근(communication approach)', '사회문화적 조건(social-cultural conditions)' 등이 있다.

'사회기술적 접근'은 정보리터러시의 이론과 실체는 공통체적이고 협력적인 양상에서의 정보기술과 능력을 다루어야 하고 정보기술은 그것이 사용되는 지식 분야, 조직 그리고 실제 과업과 무관하게 가르칠 수 없으며, 정보 기술, 작업환경에 대한 학습, 특정 지식의 형성 과정들 사이에서 상호 역할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정보리터러시 이니셔티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Tuominen et al. 2005).

Noargaard(2004)와 Harris(2008)의 조사에 의하면,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표준들은 사회 구성주의적 프레임워크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리터러시 측면에서 볼 때, 학습은 한 개인과 단일한 지식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들이 이러한 사회 구성적 관계들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Lloyd(2006)는 정보리터러시를 작업현장, 고등교육, 학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 랜드스케이프를 구성하여 정의하였다. 이것은 정보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의를 내리고자 함이었는데 정보리터러시는 기술 위주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거나 아무런 맥락 없이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정보 랜드스케이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작업이나 학습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에 관한 의견은 최근의 이슈만은 아니다. Shapiro와 Hughes는 교양과목으로 정

사회적 맥락에 관한 의견은 최근의 이슈만은 아니다. Shapiro와 Hughes는 교양과목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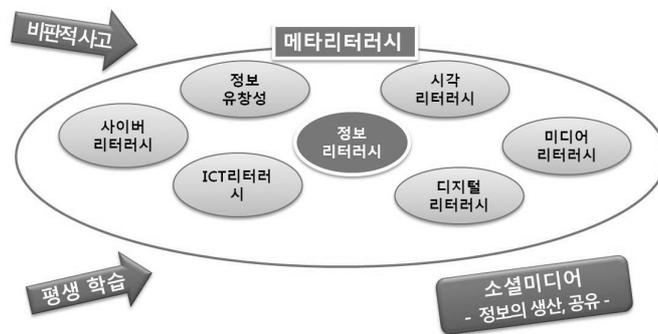
보리터러시를 제안하였다. 정보리터러시의 커리큘럼은 7개의 리터러시로 구성되었고, 'Social-Structural Literacy(사회구조적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구조적 리터러시는 정보가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된 그룹들의 일상에 들어맞는 방법을 아는 능력이라고 하였다(Shapiro & Hughes 1996). 이미 20여 년 전에 정보리터러시가 사회적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언급되었지만,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이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오늘날 소셜네트워크, 소셜미디어 등이 사회 문화에 영향을 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개념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표준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면서도, 정보기술 위주가 아니라, 사회 환경, 문화의 현재 상태, 그리고 정보 이용자의 주변 상황과의 관계를 고려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3 메타리터러시

메타리터러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리터러시들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이다. Mackey와 Jacobson

은 사이버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시각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의 유창성 등이 정보리터러시와 함께 통합 구성되는 개념인 메타리터러시로 정보리터러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Mackey & Jacobson 2011). 메타리터러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가정하였다. 메타리터러시는 리터러시의 통합 외에도, 전통적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보는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평생학습 또한 전제로 한다. 이것은 McClure가 리터러시들의 공통된 부분으로 정보리터러시를 설명한 것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McClure 1994). McClure의 정보리터러시는 리터러시들의 공통 핵심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 리터러시들 간의 교집합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며, 메타리터러시는 관계되는 모든 리터러시의 합, 즉 합집합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조건들이 많아졌고, 정보가 다양한 경로와 형식으로 추구하고 활용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메타리터러시의 구성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메타리터러시 내용 구성

2.4 트랜스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는 “신호보내기과 구술성에 서부터 필기, 인쇄, TV, 영화 그리고 디지털 소셜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도구, 미디어 등을 넘나들며 읽고 쓰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Thomas et al. 2007).

특히, 트랜스리터러시는 ‘미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이라는 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3의 구술성-구술성의 부활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은 기존의 서로 다른 형식의 정보들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고 하나의 미디어가 멀티미디어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며,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 발전만이 아니라 산업, 문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이동후 2009, 25-27).

오늘날 대표적인 미디어 융합의 현실화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스마트폰의 확대 이용을 염두에 둘 때, 이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 트랜스리터러시는 정보 획득과 활용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2.5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최근 들어, 정보네트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셜네트워크가 등장하였고, 정보의 또 다른 플랫폼으로 소셜미디어가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추구하고 활용에 대한 논의에서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잘 다루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력한 능력이다.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이나 사적기관 할 것 없이 모두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잠재적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도된 정보를 홍보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구·획득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면대면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 내고 있다.

소셜미디어 정책의 부재와 관리 미흡으로,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활용 사례가 사회의 전반에서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는 문제점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한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현상이며, 가장 대세인 미디어로 자리하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효숙(2012)은 소셜미디어를 “소셜미디어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문화적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소셜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잘 알려진 Jenkins의 ‘참여적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창조적) 구성’, ‘(공진화적) 협력’, ‘참여적 해석’, ‘호혜적 교섭’이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로 가능한지를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참여적 해석은 정보의 ‘신뢰성 판단-비판적 읽기, 수정적 글쓰기’로, 창조적 구성은 ‘재조합, 공유-의미 있는 콘텐츠의 창출’로, 공진화적 협력은 ‘집단지성’으로, 호혜적 교섭은 ‘복합관점 존중’으로 획득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의 의미 있는 사용은 ‘네트워크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리터러시의 구성 내용을 ‘창조적 구성’, ‘참여적 해석’, ‘호혜적 교섭’, ‘네트워크 인식’으로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3. 정보리터러시 재정의

정보리터러시는 ALA의 정의(ALA 1989)와 Doyle(1992)의 정보소양인에 대한 정의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에 접근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러한 정보를 평가하여,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나아가 정보 이용에 수반되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를 현재 정보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 추가하기 위해서, 앞 장의 '정보리터러시 2.0', '사회적 맥락',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정

<표 1> 정보리터러시 재정의를 위한 주요 요소 추출

관련 이슈 및 개념	키워드	정보리터러시 재정의를 위한 주요 요소
정보리터러시 2.0	해석	사회적 관계
	교섭	사회적 관계
	정보의 맥락	사회적 관계
	정보의 권위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
	정보의 신뢰성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
	정보의 정확성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
	다양한 교육경로(다양한 플랫폼)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식
	정보의 창조자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 각종 리터러시 이해
	브랜드 · 하이브리드 러닝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식
	웹 2.0 준수	사회적 관계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식
사회적 맥락 (*기술을 우선시 하지 않음을 강조함)	사회 · 문화 · 기술적 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	사회적 관계
	협력	사회적 관계
	공유	사회적 관계
메타리터러시	사이버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ICT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시각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디지털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미디어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정보의유창성	각종 리터러시 이해
트랜스리터러시	미디어융합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제3의 구술성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산업 · 사회 · 문화 패러다임	사회적 관계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소셜미디어	사회적 관계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협력	사회적 관계
	해석	사회적 관계
	교섭	사회적 관계
	소셜네트워크 인식	사회적 관계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의를 위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2장의 조사에 사용한 문헌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문헌 안에서 키워드들의 함축적 의미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최종적으로 네 가지의 요소로 유형화 하였다. 즉, '해석', '교섭', '맥락', '협력', '사회문화적 기술 관계', '공유', '산업사회문화 패러다임'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요소로, '다양한 교육경로', '미디어 융합', '소셜미디어' 등은 '미디어의 융합과 다양성 인식'에 관한 요소, '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은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 요소로 정리하였다. 메타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각각의 리터러시들은 '각종 리터러시 이해' 요소로 유형화 하였고, '정보의 창조자'는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을 갖추고 각종 리터러시를 이해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이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과 '각종 리터러시 이해' 요소에 포함시켰다.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인식'은 미디어 융합 환경의 이해와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의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사회적 관계'와 '미디어 융합 환경과 다양성 인식' 요소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정의를 수정, 보완하는데 반영하여, 정보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 하였다.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의 필요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와 플랫폼을 익숙하게 다루고,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으로 정보를 선택, 이용하며, 동료와 함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정

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 지성에 기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핵심능력이다.”

4.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정보리터러시 교육 항목 개발, 정보리터러시 수준 측정, 이용자별 정보리터러시 교육과 측정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항목의 개발 연구들은 각국의 정보리터러시 표준들과 주요 교육 모형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점을 도출하여 연구의 배경으로 삼았고, 정보리터러시 측정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 개발을 위해서, 표준과 모형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많은 정보리터러시 연구가 고전적인 표준과 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정보리터러시 내용과 주요 영역 그리고 사용한 표준과 모형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김태훈, 한복희 2010; 정영미 2009; 이용재, 이수상, 조용완, 장임숙 2009; 조용완, 이수상 2008; 이해영, 남태우 2008; 장덕현, 최고운 2008; 김성은, 이명희 2006; 장혜란, 오의경 2005; 이현실 2004).

정보리터러시의 영역은 5~7개이며, 10개의 선행연구 모두 ACRL을 이용하였고, ANZIIL과 SCONUL의 표준은 각각 7개의 연구에서, CAUL 표준과 Big 6 모형은 각각 3개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10개의 선행 연구의 정보리터러시 내용을 6개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정보요구, 필요성 인지, 두 번째 영역은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영역은 정보

탐색 전략 수립과 탐색 수행, 네 번째 영역은 정보의 분석 및 적합성 평가, 다섯 번째 영역은 정보의 체계적 조직, 활용, 공유, 종합 능력, 여섯 번째 영역은, 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인지와 대응능력이다.

〈표 3〉은 6가지 정보리터러시 영역에서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영역과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영역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정보 요구 및 필요성 인지’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이해’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하여 확장된 정보원의 이해를 추가하였고, 또

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발생하는 상황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다. ‘정보탐색 전략 수립과 탐색 수행’에 있어서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전략과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의 이해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정보의 분석 및 적합성 평가’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접근 방법을 갖는 미디어에서 발생한 혼재된 자원들 중에서 정보를 필터링 하는 능력의 함양과 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의 체계적 조직, 활용, 분석, 합성, 종합’의 내용은

〈표 3〉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기존의 정보리터러시 vs.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
• 정보요구, 필요성 인지	① 정보 요구의 파악(이해) 정의, 표현 ②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재평가	① 사회적 맥락과 주변상황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 ②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
•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이해	① 정보원의 목적, 범위, 적합성 이해 ②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① 네트워크 연결성에 의하여 확장된 정보원과 정보원 접근 방법 이해(오프라인, 온라인, SNS에 흩어져 있는 정보원들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 숙지)* ②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 이해*
• 정보탐색 전략 수립과 탐색 수행	① 필요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도구 선택 ② 탐색 전략 구축, 실행 ③ 정보의 입수 ④ 정보탐색을 위한 정보기술, 도구, 수집 방법의 최신성 유지	① 탐색도구, 탐색을 위한 플랫폼의 선택 전략, 사용 능력 함양과 사용 능력 함양에 대한 이해 ② 미디어 융합 환경 이해* ③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이해* ④ 미디어에 따른 탐색 전략 수립과 탐색 수행*
• 정보의 분석 및 적합성 평가	① 정보 독해 ② 정보 요약 ③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목적성 및 적절성 평가	① 정보필터링 능력 함양* ② 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 판단을 통한 평가*
• 정보의 체계적 조직, 활용, 공유, 종합 능력	① 정보의 조직 ② 정보를 기존 지식 체계와 비교 통합 ③ 결과물 생산 ④ 정보표현, 전달	① 협력과 공유에 의한 정보생산* ②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보생산 참여* ③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책임 의식 함양* ④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 작성 능력 함양*
• 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인지와 대응능력	① 인용, 표절, 저작권 ② 정보 이용 시의 에티켓 ③ 합법적 정보 수집과 배포	① 인용/표절 이해 ② 저작권 이해와 실천 ③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 ④ 사이버리터러시 이해와 실천*

협력, 공유, 집단지성, 정보 창조자 등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윤리적 문제 인지와 대응능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인용과 표절, 저작권에 추가하여, 연구 윤리의 이해와 실천, 사이버리터러시의 이해와 실천을 포함시켜,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윤리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두 6개 영역에서 18개의 내용 요소가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가 표시된 14개 내용요소가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내용에서 강조된 요소들이다.

5. 정보리터러시 교육방법

이 장에서는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사용될 도구적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1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 과정상의 특징을 정리하였고, 5.2에서는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가 정보리터러시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함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5.3에서는 최근 확대 이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을 소셜통계들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5.4에서는 도서관 서비스와 교육분야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전의 연구들을 개관하여, 정보리터러시 교육 방법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5.1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

정보리터러시 교육방법은 오프라인 인쇄자료 중심의 도서관 이용교육에서부터, CD, 비디오,

컴퓨터를 활용한 검색위주의 이용교육을 거쳐, 웹 기반 온라인 정보활용교육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플랫폼이 진화하였다. 인쇄본을 대상으로 아날로그적 플랫폼에서 구현되던 교육이 CD, 비디오 등의 패키지계 미디어에서 구현되었고, 컴퓨터의 등장 이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네트워크의 고성능화와 안정화가 구축되면서는 웹을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소셜미디어가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된 사례는 없지만, 많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서비스에 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리터러시 교육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점차로 도서관의 정보 교육은 이용자의 시공간에 종속되어 간다. 인쇄기반 교육에서는 도서관과 사서의 시공간에 종속적이었지만, 웹 기반으로 진화된 상태에서는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시공간을 지배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교육에 사용된 미디어들은 각 시기별로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미디어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CD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생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는 도서관의 정보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곳에서 CD를 정보의 저장 장치로 선호하여 사용하였고, 그런 유행과 편의성에 의해 도서관의 교육 매체로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오늘날 많은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는 정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학생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

된 이유 중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대중적이며 선호도가 높은 접근 방식이 웹 기반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진화상의 특징에서 볼 때, 어떠한 미디어로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구현되는 것이 좋을지 예측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 장의 논의들에서 보듯이, 오늘날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 문화적 양상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매스미디어의 '편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2 매스미디어의 편재성

1974년 Noelle-Neumann은 '침묵의 나선' 이론을 발표하였다. 당시 매스미디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전 시대의 매스미디어 소효과론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특히, 소효과론의 의견들은 매스미디어 연구 자체를 위축시켰음을 시사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강효과론을 주장한 학자들 중 한 사람인 Noelle-Neumann은 사람들은 매스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대세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하고, 고립되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대세의 의견에 따르고, 다수일지도 모르는 소수로 보이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침묵하게 된다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매스미디어의 3대 특징으로, 누적성,²⁾ 공명성,³⁾ 편재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편재성이란 '매스미디어가 모든 곳에 널리

보급되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Noelle-Neumann 1974;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2003, 57-58).

5.1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 교육을 위하여 사용된 교육방법과 도구(혹은 플랫폼)는 당시에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되는 것이었다.

Noelle-Neumann이 제시한 편재성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셜미디어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에 대한 조사를 5.3에서 실시하였다.

5.3 소셜미디어의 편재성

본 연구에서는 Noelle-Neumann의 편재성을 응용하여,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을 '소셜미디어의 보급 정도,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소셜미디어 현황 관련 자료와 소셜통계를 조사하였다.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충분히 편재되어 있다면 소셜미디어를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소셜미디어의 현황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 베이커스 닷컴'에 의하면, 지난 4월 미국 기준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방문자와 이용자 하루 평균 체류 시간이 포털 서비스의 방문자 수와 이용자 하루 평균 체류 시간을 추월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6월 기준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이

2) 누적성은 매스미디어가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을 말한다.

3) 공명성은 매스미디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유사하여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특징을 말한다.

용자 하루 평균 체류시간에 있어서, 페이스북은 하루 6시간, 야후는 하루 1시간 50분, 구글은 하루 1시간 20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약 11억 명을 넘었고,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미국은 163,817,940명이며, 우리나라는 경우 10,063,420명이다. 세계 인구를 약 70억 명이라고 가정할 때, 인구 7명 중 1명꼴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미디어로서 상당히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가입자 수로는 세계 28위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16.89%가 페이스북 가입자이며 이들 중 40%가 18-24세, 30%가 25-34세로 젊은 층의 이용이 높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년 동안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한 10개국에 대한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브라질,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미국에 이어 8위였다(www.socialbakers.com).

트위터는 본사에서 국가별 집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트위터 가입자 수는 약 600-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위터는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위력과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선거 운동, 아이티 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집트 민주화 운동 등이 그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트위터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려는 의지로 미루어 추정할 때, 트위터 역시 편재성을 갖춘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아주경제신문 07.21자 기사에 의하면,

카카오톡 사용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2012년 3월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2013년 7월 현재, 가입자 수 4,400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300만명, 스토리수 18억개, 댓글 수 180억 개를 기록 중이다(아주경제 07.21.).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하여,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과급된 소셜미디어이다.

2012년 SNS 이용현황 조사에서, 10,319명의 응답자중 23.5%가 SNS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20대의 SNS 이용률은 61%에 이르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3.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1순위 이용에 있어서는 카카오톡(31.5%), 페이스북(28.5%)이었으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종합한 이용 조사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26.4%), 다음으로 카카오톡(24.2%), 싸이월드 미니홈피(21.5%), 트위터(19.4%)의 순이다(신선 2013). 카카오톡이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편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따라 통계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소셜미디어 가입 비율은 이미 종이 신문의 구독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윤석민 2012).

또한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SNS 지도를 보면, 청와대를 비롯하여, 45개 부처에서 SNS를 업무와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미투데이 등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한다. 청와대의 경우, 위에 언급한 5개의 미디어를 모두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4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부처 SNS 지도).

위의 조사의 결과로 볼 때, 소셜미디어는 대중 속에 편재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상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개인적인 사용 외에, 사회의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일조하는 미디어로 성장하였다.

정보피로증후군의 유발, 정보필터링의 어려움, 사생활 침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빠른 유포 등 소셜미디어의 폐해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가 오늘날 가장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스마트 기기 유저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접근성과 일상성은 확대되고, 미디어로서의 편재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가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최적의 미디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미디어로서 활용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다.

5.4 도서관서비스와 교육 분야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 사례는 드물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다른 기관의 사례나 다른 국가의 도서관 사례가 보고되면서,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수상(2010)은 도서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실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대학도서관 10개관, 미국대학도서관 10개관을 대상으로, 페이스북(페이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페이스북 가입일, 팬(좋아요) 수, 활동하

는 팬의 수, 팬의 활동지수,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 등을 통하여 도서관 페이스북 페이지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게시물의 유형, 이용자의 소통현황과 소통지수로 어떤 유형의 게시물이 얼마나 소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 페이지 운영에 대한 기본 데이터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에 차이가 있었고,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 소통현황은 유사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동국대, 서울대, 인제대, 울산대가, 미국의 경우, Yale, Ball State, Utah Balley, Washington 등이 활성화된 모범 사례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여 이용하는 정도이며, 적극적인 활용단계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주로 도서관 이용관련 공지, 도서관과 외부기관의 웹 정보 링크,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 전반에서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소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계에도 등장하였다. 소셜미디어는 이전에 없었던 사용자 중심의 지식과 정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능동성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었다. 소셜 러닝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은 '맥락', '연결', '협업'의 세 가지이다.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맥락 중심의 학습이 중요하며,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사회의 요소들이 연결되어 관계성이 확장되며, 협업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집단지성과 지식의 프로슈머(knowledge prosumer)가 중요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소셜 러닝의 특성과 소셜미디어 중의 하나인 페이스북의 활동을 통한 예시는 <표 4>와 같다(권정은 2011).

〈표 4〉 소셜미디어 - 소셜러닝 - 소셜미디어 활동

소셜미디어의 특성	소셜 러닝의 특성	소셜미디어 활동(페이스북의 예)
참여(Participation)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경계 소멸	답벼락, 댓글, 댓글의 댓글
개방(Openness)	학습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	답벼락, 댓글, 댓글의 댓글, 공유하기, 좋아요
대화(Conversation)	참여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	댓글, 좋아요, 공유하기
커뮤니티(Community)	공통의 학습욕구를 지닌 참여자들 간 커뮤니티 구성	그룹, 페이지 좋아요, 채팅, 메신저
연결(Connectedness)	참여자의 수 및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 정보의 무한한 확장	좋아요, 공유하기, 태그, 친구요청과 수락

* 이 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p.7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살펴본 소셜 러닝의 특성〉에 '소셜미디어 활동' 부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는 러닝에서 교수와 학습자간의 경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페이스북의 답벼락 글쓰기, 댓글쓰기, 댓글의 댓글쓰기 등으로 가능하고, 개방은 학습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으로, 대화는 참여자간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커뮤니티는 공통의 학습욕구를 지닌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으로, 연결은 참여자 수 및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 정보의 무한확장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소셜 러닝의 사례로는 TED, KOCW 등이 있으며 '참여', '공유' 등의 소셜미디어와 웹 2.0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소셜러닝 외에, 소셜미디어를 교육활동에 관련지은 몇몇 연구가 있다. 대체로 연구들은 소셜미디어가 교육목적에 따라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김윤선(2012)은 스마트 시대, 대학 글쓰기에서 인터넷 글쓰기를 다룰 경우 글쓰기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웹 2.0에 대한 정신적 지향,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개방, 공유, 평등, 참여의 정신을 글쓰기를 통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디지털 글쓰기 교육에서, 정직

성, 정보생산능력, 정보수집, 독자고려(필터링), 의사소통, 평등의식과 집단지성 함양에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김영래(2010)는 '관계'와 '소통'의 성향을 갖는 소셜미디어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도 공감과 공유의 측면에서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특히, 참여적 신앙교육의 기반으로 공감의 커뮤니케이션, 참여적 신앙의 완성을 위한 공유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감과 공유를 강화시키면 기독교교육의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박일우, 김우형, 박주형(2012)은 교양교육에서 인터넷 집단 지성의 활용을 위한 제언을 교육의 속성에 따라 설명하였고, 계명대학교의 교양교과목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실용시사영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의 세 개의 과목에서 집단지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지성의 함양에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하였다.

아직 도서관서비스에서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적용한 연구는 없지만, 소셜러닝에 대한

논의와 소셜미디어를 실제 교육 목표에 맞게 사용한 연구 사례들처럼 정보리터러시의 교육에도 소셜미디어가 현재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는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환경에 맞는 정보리터러시의 정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존의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구성 내용은 ALA, ACRL, SCOUNL, CAUL, ANZIIL 등의 각국의 대표적인 기관에서 제시한 정의와 표준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안정적이지만, 정보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리터러시의 재정의를 위해서는, 정보환경과 이용에 관련된 개념과 이슈들을 조사하였다. 정보리터러시 2.0, 사회적 맥락,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그리고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내용과 주장을 살펴보고, 정보리터러시를 재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해석', '교섭', '맥락', '협력', '사회 문화적 기술 관계', '공유', '산업사회 문화 패러다임' 등으로 표현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요소이며, 두 번째 요소는 '미디어의 융합과 다양성 인식(다양한 교육경로, 미디어 융합, 소셜미디어)', 세 번째 요소는 '정보에 대한 평가적 안목(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이다. 네 번째 요소는 '각종 미디어의 이해'이다.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정보리터러시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새로운 정의는 기존의 정의에 새로

운 요소가 추가되어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ACRL, SCOUNL, CAUL, ANZIIL의 핵심 구성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내용 6가지를 골격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18개의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미디어 융합에 대한 이해, 협력, 공유,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보의 창조적 생산 능력 등에 강조점을 두었다.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편재성 개념을 적용하고 각종 소셜 통계 및 조사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는 편재성이 있는 미디어로 현재의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정보리터러시 재정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향후에는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효과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리터러시 교육과 측정을 위해서는 교육자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와 각종 도구를 잘 다루는 소위 프로그램 리터러시가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교육자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와 프로그램 리터러시 수준 등이 이용자 대상의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정교화 과정 전에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소셜미디어들의 각각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유력한 소셜미디어가 200여 개에 이르는 현재에, 소셜미디어 각각이 갖

는 특성과 이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후속 연구에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정은. 2011. 미래 사회의 新학습모델, 소셜 러닝의 부상. 『IT & Future Strategy』, 4호,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2] 김성은, 이명희. 2006.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교수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77-200.
- [3] 김영래. 2010. 소셜미디어와 기독교 교육-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적 신앙교육의 모색. 『신학과 세계』, 69: 411-437.
- [4] 김윤선. 2012. 스마트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3): 249-279.
- [5] 김태훈, 한복희. 2010.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대회』, 253-266.
- [6] 김효숙. 2012. 페이스북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리더러시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학습과학연구』, 6(2): 20-38.
- [7] 박일우. 2012. 교양교육에서 인터넷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한 제언.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2012년 춘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69-89.
- [8] 신선. 2013.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KISDI STAT Report』, (13-04): 11-15.
- [9] 윤석민. 2012. 2012년의 언론과 미디어 동향 회고. 『관훈저널』, 127: 177-181.
- [10]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2003. 『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나남출판.
- [11] 이동후. 2009. 융합 미디어 환경, 트랜스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주체의 양가성.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Beyond Convergence: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 15-32.
- [12] 이수상. 2012. 도서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47-372.
- [13] 이수상. 2007.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87-103.
- [14] 이용재, 이수상, 조용원, 장임숙. 2009.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113-137.

- [15] 이혜영, 남태우. 2008.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척도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503-532.
- [16] 이현실. 2004. 텔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3-322.
- [17] 장덕현, 최고운. 2008.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37-60.
- [18] 장혜란, 오의경. 2005.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207-231.
- [19] 정부부처 SNS 지도 Social Network Service. [cited 2013.6.30].
 <<http://app.pr.go.kr/sns/html/snsmap.aspx>>.
- [20] 정영미. 2009. 정보활용교육이 도서관과 정보활용능력 자가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65-280.
- [21] 정재영. 2008. 대학도서관의 웹기반 정보활용교육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195-217.
- [22] 조용완, 이수상.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0): 75-99.
- [23] 『아주경제』, 2013. 가입자 1억, 카카오톡·카카오토티 탄생 배경은? 7월 21일. [cited 2013.7.22].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21000111>>.
- [24]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연구회. 2012. 『소셜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Chicago: ALA.
- [26] Association of College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ited 2013.4.1].
 <<http://www.ala.org/acrl/standards/informationliteracycompetency#ilhed>>.
- [27]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 2004.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Principles, Sandards and Practice*. [cited 2013.4.1].
 <<http://www.library.unisa.edu.au/learn/infolit/Infolit-2nd-edition.pdf>>.
- [28]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2001.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 [cited 2013.4.1].
 <<http://www.caul.edu.au/caul-programs/information-literacy/publications>>->InfolitStandards2001.doc.>.
- [29] Doyle, C. S. 1992. *Development of a Model of Information Literacy Outcome Measures within Nation Education Goals of 1990*. Doctoral Dissertation, Northern Arizona University.
- [30] Harris, B.R. 2008. "Communities as Necessity in Information Literacy Development: Challenging the Standard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4(3): 248-255.

- [31] Jenkins, Henry 저. 2008. 『컨버전스 컬처: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충돌』. 정희원, 김동신 역. 서울: 비즈앤비즈.
- [32] Lloyd, A. 2006. "Information Literacy Landscapes: an Emerging Picture." *Journal of Documentation*, 62(5): 570-583.
- [33] Mackey, Thomas P., & Jacobson, Trudi E. 2011. "Reframing Information Literacy as Meataliterac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2(1): 62-78.
- [34] McClure, C. R. 1994. "Network Literacy: A Role for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 13(2): 115-125.
- [35] Norgaard, R. 2004.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in the Classroom."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3): 220-226.
- [36] Noelle-Neumann, Elizabeth.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43-51.
- [37] Shapiro, Jeremy, & Hughes, S. K. 1996. "Information Literacy as a New Liberal Art: Enlightenment Proposals for a New Curriculum." *Educom Review*, 31(2): 31-35. [cited 2013.7.1]. <<http://www.ogs.edu/resources/docs/library/infolit.pdf>>.
- [38] Spiranec, Sonja, & Zorica, Mihaela Banek. 2010. "Information Literacy 2.0: hype or discourse refine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66(1): 140-151.
- [39] Sudin, O. 2008. "Negotiations on Information Seeking Expertise: a Study of Web-based Tutorials for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Documentation*, 64(1): 24-44.
- [40] Thomas, S. et al. 2007. "Transliteracy: Crossing Divides." *First Monday*, 12(12-3). [cited 2013.7.13]. <<http://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2060/1908>>.
- [41] The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2011. *The SCONUL Seven Pillars of Information Literacy-Core Model for Higher Education*. [cited 2013.4.1]. <<http://www.sconul.ac.uk/sites/default/files/documents/coremodel.pdf>>.
- [42] Tuominen, K. 2007. "Information Literacy 2.0." *Signum*, 40(5): 6-12.
- [43] Tuominen, K., Savolainen, R., & Talja, S. 2005. "Information Literacy as a Sociotechnical Practice." *The Library Quarterly*, 75(3): 329-345.
- [44] Socialbakers.com [cited 2013.4.15, 2013.7.14]. <<http://www.socialbakers.com>>.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Jeong-Eun. 2011. "New Learning model of Future Society, the Rise of Social Learning."

- IT & Future Strategy*, vol.4.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2] Kim, Sung-Eun, & Lee, Myeong-Hee. 2006. "A Study on the Learning-Instruc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77-200.
- [3] Kim, Young-Rae. 2010. "Social Media and Christian Education - Utilizing Social Media Seeking Participatory Faith Education." *Sinhak Gwa Seige*, 69: 411-437.
- [4] Kim, Yun Sun. 2012. "Smart Age, the Change of the College Writing Education - Focused on Social Network Service (SNS) Writing Education." *Korea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6): 249-279.
- [5] Kim, Tae-Hoon, & Han, Bok-Hee. 2010. "A Study on the Evalu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Proceedings of Summer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0, 253-266.
- [6] Kim, Hyo-Sook. 2012.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Social Media Literacies Using Facebook."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6(2): 20-38.
- [7] Park, Il-Woo. 2012. "Applying Collective Intelligence to the General Education: a Case Study." *Proceedings of Spring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2012, 69-89.
- [8] Sin, Sun. 2013. "The Use and Status of SNS(Social Network Services)." *KISDI STAT Report*, (13-04): 11-15.
- [9] Yoon, Seok-Min. 2012. "Retrospect on Trends of the Press and Media in 2012." *Kwanhun Journal*, 127: 177-181.
- [10] Oh, Taik-Sub, Gang, Hyng-doo, & Choi, Jeong-Ho. 2003. *Media and Information Society*. Seoul: Nanam.
- [11] Lee, Dong-Hoo. 2009. "Media Convergence, Trans literacy, and Ambivalence of the Digital Subject."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tudies Seminar and Reports Beyond Convergence: The Future of Digital Convergence*, 15-32.
- [12] Lee, Soo-Sang. 2012. "A Preliminary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University Library Facebook Pages: around Korean & USA University Libraries." *Th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47-372.
- [13] Lee, Soo-Sang. 2007. "A Survey Research on Information Literacy Level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87-103.
- [14] Lee, Young-Jae, Lee, Soo-Sang, Cho, Young-Wan, & Jang, Im-Sook. 2009.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113-137.

- [15] Rhee, Hye-Young, & Nam, Tae-Woo. 2008. "The Study on Undergraduates' Information Literacy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503-532.
- [16] Lee, Hyun-Sil. 2004. "Study of Contents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with Delphi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303-322.
- [17] Chang, Durk-Hyun, & Choi, Go-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37-60.
- [18] Chang, Hye-Rhan, & Oh, Eui-Kyung. 2005. "Information Literacy: Identification of Factors Affecti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207-231.
- [19] Social Network Service. <<http://app.pr.go.kr/sns/html/snsmap.aspx>>.
- [20] Jung, Young-Mi. 2009.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nd the Impact of Self Awareness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braries." *Th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65-280.
- [21] Chung, Jae-Young. 2008. "A Study on the Web-based Information Literacy Model Development for University Libraries." *Th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195-217.
- [22] Cho, Young-Wan, & Lee, Soo-Sang. 2008.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0): 75-99.
- [23] "100 million subscribers, What is birth background of Cacao Talk and Cacao Story?" 2013. *Ajukyungjae*, 21 July. [cited 2013.7.22].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21000111>>.
- [24] Meeting for Broadcasting and Audience in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012. *Research on Social Media*. Seoul: Communication Books.